Q1.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1번의 실패와 1번의 성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집념과 근성]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하는 집념과 근성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이 있다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복된 도전과 성공의 과정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초기에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입찰 탈락을 11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입찰에 성공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탈락했던 제안서들을 분석하여 상황 및 환경 분석 부족으로 제안사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입찰이었던 '2017 가상현실 기반의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제안사) 중심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상황 및 환경분석 결과 KAIST에서는 이미 2~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VR 기기의 특성상 다수의 기기를 한꺼번에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VR 기기를 동시에 통제하는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궁극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복수의 VR 콘텐츠 원격 통제 솔루션’을 콘텐츠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을 더욱 강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강한 집념과 근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Q2.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에서만 그친 아쉬움]

서울시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었습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시 서울의 공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버스의 정류장 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와 구간별 교통 혼잡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차 도우미 앱’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 교통 체증 개선 방안’이라는 아이디어가 좋게 인정받아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안의 가능성은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구현하지 못하였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회사를 선택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가능성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대자동차]

변화의 가능성과 실행력을 갖춘 현대자동차가 저의 회사 선택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로서 연구 · 품질 · 생산 · 판매의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신기술 적용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IT 기술을 이용해 업무 프로세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SCM 시스템, 글로벌 ERP 시스템, PLM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Connected Life’를 향해 가는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길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처럼 효과적인 IT 전략 제시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목적지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Q3.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조사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시한 사업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때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즐거움은 곧 좋은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느낀 일의 즐거움을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IT 전략’ 부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IT 기술 적용 방안을 계획 및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일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M 직무를 통해 얻은 직무 역량]

스타트업에서 PM 직무를 맡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직무 역량을 길렀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길렀습니다. 프로젝트의 PM으로서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에 맞게 업무 분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길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였습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렀습니다. 고객사와 팀원들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고객사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꼼꼼한 프로젝트 관리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은 PM 직무였지만, 오히려 짧은 경력으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IT 전략’ 부서에서도 현업과 함께 프로젝트 단위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프로젝트에 큰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